

특별기획

군산시 옛 시청 부지 활용 장기표류

조속한 방안 마련 나서야



익산시,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익산시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지역 익산시 부시장, 9개 국·소·단장 등이 참석해 시정 방침 및 핵심목표, 추진전략 등을 점검한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에 시정방침인 산업 활력 경제도시, 역사문화 융성도시, 평생맞춤 교육·복지도시, 안정·공정·열정 건강도시, 균형발전 상생도시를 기조로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익산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10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익산농업인대학은 3개 반 100명(농·식품 창업 40명, 양방 산업반 40명, e비즈니스 리더반 20명)이며, 오는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학과별 재배개수에서 유통 가공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 토의, 체험, 견학 등 종합 교육 과정으로 편성된다.

신청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영농 규모를 갖춘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익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iksan.go.kr/fam)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김성중 익산경찰서장 제20대 상공대상 수여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4일 오전 10시 30분경 원광대학교 송산기 캠퍼스 3층에서 이 자리에서 기업대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상공회의소로부터 제20대 익산상공대상 상을 수여받았다.

이날 김성중 익산경찰서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 및 기업체 대표 기관단체장 간의 화합과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0대 익산상공대상을 수여받았다.

김성중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가 옛 시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표류하고 있어 조속히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LH공사로부터 67억여 원에 옛 시청부지를 매입한 지 1년여가 훌쩍 지났으나 여전히 구체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옛 시청부지를 매입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곳 부지를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근대문화·역사 1번지인 옛 시청부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근대 문화지원을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행정거점으로 활용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또 주변지역 및 대상지 역사성을 살린 콘텐츠를 도입해 증가추세인 관광객 유치를 증진시키고, 쌀·곡식·객주 문화가 융합된 도시체형형 공간이라는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옛 시청부지 활용의 가장 기본인 현 건물 리모델링 및 새 건물 신축 여부 사업비 조달방안 등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의 시의회 등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옛 시청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시의회 각 상임위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시와 시의원들 간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지난해 3월부터 용역에 들어간 옛 시청사 활용방안은 착수보고회를 거쳐 6월 말에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군산시는 지금까지 시기를 늦춰왔다.

따라서 옛 시청 부지 활용방안 수립 더욱이 군산시의 시의회 등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옛 시청 활용방안으로 미술관 등 문화공간 조성에 좀 더 무게를 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옛 시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시민 설문조사에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32.9%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 활용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원도심 관광의 노른자위 부지인 만큼 조속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따듯한 시선이 대두되고 있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연중신청 받아 총 40세대... 최대 2000만원 이내

익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1월 3일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 총 40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전라북도도와 익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에게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격요건은 익산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이며, 세대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

을 무이자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3개소로 영구임대주택인 부송동 주공차 동산동 주공아파트와 국민 임대주택 11개소이다.

임대대상자가 공급주체(LH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임피면, AI 확산방지 총력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임피면(면장 전종신)이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피면은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생석회 400여포와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축사 및 차량 소독에 만전

을 기하고 이장협의회 및 주민들에게 AI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24만수와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1500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

당 공무원을 지정 매일 전화예찰 및 방문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종신 임피면장은 "축산농가에서도 농가 소독, 농장 출입통제 철저 등 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가금농장은 일제 입식출식(AI-in AI-out) 시스템을 적용할 것과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소용 선생 6.25전쟁 호국영웅 이기협 공군 대령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1월의 독립운동가에 이소용 선생과 6.25 전쟁 호국영웅에 이기협 공군 대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소용 선생은 1852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872년 22세 때 화서 이항로의 제자인 유종교의 문하에 들어가 일생을 화서학파 선배인 의암 유인석과 항일투쟁에 매진하였다.

조선이 187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자 면담 최약형 등 화서학과 유생들과 반대 상소를 올려 일제의 침략성을 규탄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선생은 유인석의 권유로 의병대에 동참하여 1896년 춘천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춘천의병은 관찰사로 부임한 친일관료를 처단하고 서울로 진격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가평에서 패전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이후 선생은 재천 유인석 의진에 입진하고, 이들과 함께 1898년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망명지에서 항일의지를 다지던 선생은 유인석과 함께 귀국한 뒤 후학양성과

제천의 자양영당(紫陽影堂) 건립 활동을 펼쳤다.

6.25전쟁 영웅 이기협은 1948년 9월 조국 참공에 대한 기상과 열정을 품고 항공병 2기생으로 입대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8일 당시 이등상사였던 이기협은 미군사교단의 L-5연락기 2대가 여의도기지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에 전시에 아군기체를 인정한 그는 1950년 9월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승호리 철교는 적 후방 보급로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파괴해야 하는 곳이라 제공비료를 차단하고 서울을 안착시켰다. 같은 해 3월 북한의 전쟁잠재력을 해체하기 위한 송림공업도시 폭격, 8월 평양 대폭격,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등 6.25전시에 빛나는 주요전투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아이맘's 카페와 함께하는 겨울특강 프로그램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오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군산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맘's 카페와 함께하는 겨울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 중인 아이맘's 카페는 겨울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림스타트 대상자 외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이맘's 카페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대상 연령에 맞춰 ▲3~4세 유아와 모(母) 12명을 대상으로 관계형성 방법을 교육하고 실

천해보는 애착형성 프로그램 ▲6~7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동화를 요리로 표현해보는 동화요리 프로그램 ▲초등학교 1~3학년 10명을 대상으로 미니어처를 조립·제작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차장희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맘's 카페를 더 많은 아동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늘푸른도서관, '1월 시네마 천국' 운영

군산 늘푸른도서관이 '시네마 천국'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온가족이 함께 즐거운 영화를 보며 신나는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3편을 상영한다.

오는 7일에는 '주토피아'를 이어 14일에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치킨

히어로'를, 21일에는 머물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법학교에서 퇴학당한 해리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사조 기사단'이 별기는 어린이의 마법사들과의 전쟁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상영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DreamHub GUNSAN